

간선으로 후보 3명 압축... 두 달 지나서야 직선 전남대 총장선거 혼탁 우려

선거활동 기간 길어져 로비·야합 부를 수도

‘간접+직접’ 방식으로 치러질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간접선거 후 두 달이나 지나 직접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전남대에 따르면 제19대 총장은 오는 3월23일 입지자들을 상대로 간접선거를 통해 3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2개월 후인 5월 23일 직접선거를 치러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이나 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선거는 간접선거를 치른 뒤, 당일 또는 이를 이내에 본 선거를 실시한다. 이는 후보들의 유권자에 대한 로비나 후보자 간 야합 등 부정부패 및 혼탁 선거

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가장 공명해야 할 대학총장 선거에서 3명의 본선 후보를 결정할 뒤, 두 달이 지나 직접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해 구성원들은 물론 입지자들도 되레 혼탁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접선거에서 뽑힌 3명의 후보들이 2개월 간 선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어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간선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자신의 세력을 내세워 결선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등 이해득실에 따라 이합집산할 경우 대학의 극심한 분열상을 초래할 수도 있

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치러진 조선대 총장 선거도 간접선거 후, 이를 만에 직접선거를 치렀으나 그 사이에 후보들간 연대가 이뤄져 비난을 받았다. 지역민들도 대학이 총장 선거로 인해 반박·대립의 분위기가 도를 넘어, 총장 선출제 자체가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남대의 총장 선출 방식은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남대 평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9대 총장 선거를 관리할 총장인용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최근 19대 총장 선거와 관련된 주요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일종의 간접선거인단이라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가 다수의 입지자 가운데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며, 전체 교수·직원들과 학생대표가 후보 3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없이 단 한 차례 직접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자천타천으로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이는 행정학과 오재일, 정치외교학과 지병문·윤성석, 병리학교실 박창수, 외과학교실 김영진, 경영외과학교실 윤택립, 신소재공학부 이병택·박충년, 응용화학공학부 문희, 과학교육학부 김현태, 사학과 최영태 교수, 화학과 국성근·최용국 교수 등 13명(무순)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부교육장 6명 공모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을 맡게 될 교육장 공모에 모두 6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본청에서 문재욱 인성복지건강과장과 장오동 교육과정과장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심형희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교장이 응모했다. 학교장은 김일남 문산초 교장, 김재화 장덕초 교장, 임재강 수문초 교장 등 3명이 지원했다. 전형은 27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예전과는 달리 교장 경험만 있으면 장학사와 장학관, 본청 과장 등 전문직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47분 달돋이 03시 35분 달질 13시 47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1/7°C
목포	흐림	1/7°C
여수	흐리고가끔비	6/9°C
나주	흐림	0/7°C
완도	흐림	3/8°C
구례	흐리고한때비	3/8°C
강진	흐림	3/8°C
해남	흐림	2/8°C
장흥	흐림	2/8°C
순천	흐리고한때비	5/9°C
영광	흐림	-1/6°C
진도	흐림	3/8°C
전주	흐림	0/7°C
군산	흐림	0/7°C
남원	흐림	0/8°C
홍산도	흐림	4/5°C

바다	중랑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5~2.5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3/8	3/7	1/5	-3/1	-4/0	-4/0

“빛나는 글로 세상 밝혀주길”

광주일보 신춘문예·문학상 시상식

‘금남로 가는 길’ 출판기념회도 열려

미래 한국 문단을 책임질 신인 작가들이 활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히딩크 호텔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제7회광일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또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5집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관련기사 12면> 이날 신춘문예 시상식에서는 정영희(시)·김용태(소설)·장미연(동화)씨가 각각 수상했고, 소설가 이원화(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씨가 제7회광일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광일문학회(회장 윤삼현)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제15집 출판 기념회가 함께 열렸다. 윤삼현 회장은 “어려운 시절에 힘든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신진 작가들이 빛나는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18일 광주 히딩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2012년 신춘문예 당선자 및 제7회 광주일보 문학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집인 '금남로 가는 길 15집'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왼쪽부터 이원화(광주일보 문학상), 장미연(신춘문예 동화부문) 유제철(광주일보 시장), 정영희(시부문) 김용태(소설 부문)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40만명 학교폭력 전수조사

피해 종류·장소·사태 등 설문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40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 학교명을 적시하도록 해 지역 학교의 ‘일진’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폭력 실태가 드러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주 대상 학생은 19만3000여명, 전남은 20만8000여명이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학년·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www.kjhr.com

국제보청기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싼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붕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비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사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지번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大賞 그린알로에

자랑스런 인물 大賞 그린알로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大賞 시상식

일시 : 2011. 12. 2(금) 오후 1시 ~ 4시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권별선홀

자랑스러운 인물 大賞

2011. 12. 2(금) 오후 1시 ~ 4시

그린알로에 대표이사 정광숙

고객상담실 080-234-6588